한국문학논총 제65집(2013. 12) 413~443쪽

딱지본 옛소설 『사명당전四溟堂傳』의 판본과 유통 맥락*

이순욱** · 한태문**

차 례

Ⅰ. 근대계몽기 인물전기와 딱지본 옛소설 『사명당전』
Ⅱ. 딱지본 옛소설 발간의 문화적 기반과 역사·전기소설
Ⅲ. 1920년대 『사명당전』의 판본 성격과 유통 맥락
Ⅳ. 마무리

KYOBO 교보문고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1920년대 발간된 딱지본 옛소설 『사명당전』의 형성 기반, 다양한 판본의 성격과 특성, 유통 경로를 규명하고자 했다. 1910년대 이후 일제의 대대적인 금서 조치로 출판지형이 크게 위축된 이후 출판사들은 딱지본 옛소설을 발간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었다. 특히,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조선의 역사위인전기가 양산되었는데, 이는 딱지본 역사소설이 '조선적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강사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인 것'과 그 정체성을 강조하던 문화민족주의와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독자들의 영웅 출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데 적절한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중후반 딱지본 옛소설 『사명당전』이 4종이나 생산·향유된 것은 이러한 문화적 기반에 힘입은 바 크다.

근대계몽기 인물기사와는 달리 딱지본 옛소설 『사명당전』은 저항적 민족주의적 색채를 탈각시키고, 상업주의와 맞물려 흥미 위주의 통속성에 기댄 측면이 강하다. 근대계몽기 재발행된 홍양호의 『해동명장전』(1907)의 인물전기에 살을 덧붙이면서 사실성에서 허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또한 '서산대사전'의 부록으로 다루어지던 서술 체재와 형식을 벗어나 독립적인 역사·전기소설로 나아가는 양상을 띠었다. 무엇보다도 『임진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명당의 신이한 능력을 비롯한 설화적 요소, 병부상서 석성의 아내와 정곤수의 일화를 차용하거나 변용한 야담적 요소, 가정비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복수 모티프들을 적극 수용하면서 통속성을 강화하는 과정을 밟았다.

우선, 전체 5장의 회장체로 구성된 덕흥서림본 『西山大師와 四溟堂』(1926)은 통속적 색채를 강조하기 보다는 근대 역사·전기문학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춘 계몽성이 강한 역사소설이었다. 둘째, 영창서관본 『님진병난 四溟堂實記』(1926)는 서사내용이 가장 풍부한 판본 가운데 하나였다. 전체적으로 사명당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소설에 가깝지만, 출가 이전 가정 비극을 주류화하여 통속적 재미를 추구하고 있었다. 출가(出家) 전의 서사는 판본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후 발간되는 판본에서 출가 이전 사명당 행적의 밑그림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회동서관본 『道僧 四溟堂(1928)』은 내용에서 부분적인 차이가 있지만 영창서관본의 변주에 가까운 소설이었다. 물론 영창서관본에 비해 출가 후 서사는 사명당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넷째, 신구서림본 『四溟堂傳』(1928)은 영창서관본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발췌 편집하여 압축적으로 요약한 판본이었다. 판권을 넘겼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영창서관본의 체재와 서사구조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었다.

주제어 : 사명당, 딱지본 옛소설,『사명당전』, 판본, 덕흥서림본, 영창서관본, 회동서관본, 신구서림본

Ⅰ. 근대계몽기 인물전기와 딱지본 옛소설『사명당전』

두루 알다시피 근대계몽기는 민족 교양과 계몽의 측면에서 역사전기 담론이 양산된 시기다. 특히 영웅 전기는 민족의 주체성을 고양하고 외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이었다. 대중의 무의식 속에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역사적 인물을 소환한 이러한 전기는 계몽적 의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문학적 성격이 강한 셈이다. 문학의 효용성이 강조되던 당대의 기풍 속에서 서사성과 통속성의 약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만큼 근대계몽기 영웅 전기는 국민의 행동을 촉구하는 호명의 형식[1]으로서 당대 사회의 지향을 오롯이 담고 있는 문학양식이라 볼 수 있다.

근대계몽기 사명당 전기는 몇몇 매체를 통해 단형의 인물기사 양식으로 소개되었을 뿐이며, 역사·전기소설로 창작되는 과정을 밟지 않았다. 이 시기 역사·전기소설의 생산을 촉발했던 인물기사를 간단히 살펴보자.

① 惟政字松雲西山高足也丁酉倭人再擧兵敗請成朝廷以惟政假使命以送蓋倭人重佛敎素聞惟政之名故也惟政仗劒渡海意氣軒昂倭人莫不敬憚及

1) 이진경,「근대 계몽기『대한매일신보』에서 근대적 역사 개념의 탄생」,『사회와 역사』제74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135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到江戶秀吉與語大悅言言屈服秀吉容問貴國聞多珍異何物爲最寶耶惟政曰以倭人之頭爲上寶秀吉大笑館接甚厚遂竣事而還 上嘉之特賜禪號曰四溟大師惟政之從有靈奎者壬辰率僧軍擧義于淸州與趙文烈憲相與掎角錦山之戰文烈敗死靈奎亦力戰死之 正宗甲寅建祠於西之香山南之晉州以祀休靜惟政賜額于西曰酬忠南曰表忠.

—홍양호, 「休靜, 惟政, 靈奎」 가운데서[2]

② 惟政의 字는 松雲이니 西山高足이라. 丁酉에 日人이 再侵이라가 庚子에 兵罷ᄒᆞ믹 和議를 請ᄒᆞ거를 朝廷이 惟政으로 使節을 持ᄒᆞ야 日本에 往ᄒᆞ니 盖日人이 佛敎를 尊尙ᄒᆞ고 且 惟政의 聲名을 素慕ᄒᆞᆫ 故라. 惟政이 伏釰渡海에 意氣軒昂ᄒᆞ니 彼가 莫不敬歎이러라. 及到江戶에 關白이 與語大悅ᄒᆞ야 言言敬服이라. 關白이 從容問ᄒᆞ되 聞貴國에 多珍異라 ᄒᆞ니 何物이 爲最寶耶아. 惟政曰 我國은 無寶오 以倭人之頭로 爲上寶라 ᄒᆞᆫᄃᆡ 關白이 大笑ᄒᆞ고 款接이 甚厚러라. 竣事而還ᄒᆞ믹 上이 嘉之ᄒᆞ사 特賜禪號曰 四溟大師라 ᄒᆞ시다. 惟政之徒에 有靈圭ᄒᆞ니 壬辰에 僧軍을 率ᄒᆞ고 淸州에 擧義ᄒᆞ야 與趙文烈憲으로 椅角賊勢러니 及錦山之戰에 文烈이 敗死ᄒᆞ니 靈圭ㅣ 力戰死之ᄒᆞ다.

正祖 甲寅에 西之香山과 南之晋州에 建祠ᄒᆞ야 休靜과 惟政을 祀케 ᄒᆞ시고 賜額ᄒᆞ시되 西曰 酬忠 南曰 表忠이라 ᄒᆞ다.

—「休靜大師傳 附惟政 靈圭」가운데서[3]

---

2) "유정의 자는 송운으로 서산대사의 고제자이다. 정유년에 왜인이 다시 쳐들어와 패하자 강화를 청하였다. 조정에서 유정에게 임시로 사명을 내려 보내었다. 대개 왜인들이 불교를 중시해 본디 유정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정은 칼을 차고 바다를 건너서도 의기가 높이 찌른 까닭에 왜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호(江戶)에 도착하자 수길이 함께 이야기를 하며 크게 기뻐하였고, 말할 때마다 굴복하였다. 수길이 조용히 묻기를 "그대의 나라는 진귀한 보물이 많다고 들었는데 무엇이 최고인가?" 하자, 유정은 "왜인의 머리를 최상의 보물로 친다." 하였다. 수길이 크게 웃고는 공관에서 후한 대접을 하였다. 드디어 일을 끝내고서 돌아왔다. 임금은 특별히 '사명대사'라는 법호를 하사했다. 유정의 승려집단 중에 영규(靈圭)가 있어 임진란 때 승군을 이끌고 청주에서 거의해 문열공 조헌과 함께 금산 전투에서 힘껏 싸웠다. 문열공은 패하여 죽고, 영규 또한 힘써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정조 갑인년(1794)에 서쪽의 향산과 남쪽의 진주에 사당을 세워 휴정과 유정을 제향하면서 서쪽은 '수충사', 남쪽은 '표충사'라 사액하였다." 홍양호, 『海東名將傳』 卷之五, 조선광문회, 1911, 15~16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인용문 ①은 홍양호의『해동명장전』[4]을 근대계몽기 들어 중간(重刊)한 책 가운데서 따왔다. 조선 후기에는 임병양란을 거치면서 역사인물에 대한 역사 전기가 두루 생산되었는데,『해동명장전』이 대표적이다. 을지문덕, 김유신, 장보고 등 역대 명장들의 일대기를 엮은 이 책을 최남선이 이끈 조선광문회에서 재간행한 까닭은 과거의 역사적 영웅을 호출함으로써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명장으로 권5에 소개된 사람은 곽재우, 정문부, 황진, 서산대사, 사명당, 영규, 정기룡, 김시민 등 모두 임진왜란의 구국영웅들이다.

그런데 순한문으로 되어 있는 ①과 한문에 한글토씨를 단 ②는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다. "秀吉"을 "關白"으로, "言言屈服"을 "言言敬服"으로 단순히 몇몇 자구만을 수정했을 뿐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 ②가『해동명장전』을 저본으로 삼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권회복을 위한 애국심의 고취가 당대 지식인담론의 주요한 지향점이었다고 보면, 이 시기 박은식이 주도한『서우』나『서북학회월보』에서 자주 보이는 인물기사는 독자들에게 애국주의를 내면화하는 방법적 전략이었다. 물론 인용문은 인물의 가계와 출생 내력, 중요한 행적, 평결의 구조를 갖춘 인물전기의 일반적 구성 양식에서는 벗어나 있다. 하지만, ②에서 보듯이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여 ①에 비해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계몽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 시기 인물기사가 을지문덕, 양만춘, 이순신 등 입전인물을 대체로 무인으로 선택한 것은 문치주의(文治主義)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담고 있는 것이다. 홍양호는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면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이유로 '문치'를 꼽았다.[5] 그가 해동의

3)「休靜大師傳 附惟政 靈圭」,『西北學會月報』제1호, 1908.6, 35~36쪽.

4) 이 책은 1794년에 완성되어 1816년에 간행되었다. 서지학자 하동호에 따르면, 이 책은 1907년 회동서관의 전신인 경성대광교서사(京城大廣橋書肆)에서 대중보급용으로 발행되었다고 한다. 하동호,「韓國 古書籍商 變遷略考」,『출판학연구』제74집, 한국출판학회, 1974, 79쪽.

5) "조선은 강역이 옛날과 같아 백성들이 더 줄지 않았는데, 병력이나 전공은 고려에 비해 한참 따라가지 못하였다. 한 번 임진왜란을 당해 팔도가 와해되니, 진정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명장들을 입전한 까닭은 바로 옛날의 일을 빌어 세상을 경계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근대계몽기는 대한제국의 주권이 침탈되는 을사늑약을 거쳐 나라의 명운이 가파르게 국망으로 치닫던 때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권을 되찾고 근대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출판문화운동의 방편으로서 역사서적의 발간은 시대적 요청사항이었다. 근대계몽기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가 문명개화와 구국계몽에 있었다고 보면, 을사늑약 이후에는 구국에 중점을 두었던 까닭에 출판문화운동은 다분히 민족운동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역사전기서적이나 지리서적, 교과용 도서가 양산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6] 특히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 교과서 현채의 『유년필독(幼年必讀)』이 금지 처분된 사실을 통해 당시 출판의 민족주의적 지향성을 읽을 수 있다.[7] 1907년 애국주의를 고취할 목적으로 발간된

명나라의 힘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장차 나라를 영위할 수 없었다. 병자호란에 이르러 용맹한 기병이 멀리 말을 몰고 와 마치 빈 고을을 휘젓듯 분주히 내달리며 땀을 흘렸다. 수십일 사이에 목숨을 구걸했으니, 이는 어찌된 까닭인가? 근원을 따지면 문치가 숭하고 무력은 펼치지 못함으로써 점점 맥이 빠지고 나약해져 떨치지 못한 탓이다. 뼈아픈 전란이 평정되고서는 태연하게 일이 없었던 듯 했으니 어찌 애통하지 않으리오? 내가 이를 두려워하여 우리나라의 명장을 모았다. 위로는 신라 고려로부터 아래로는 조선에 이르기까지 열전을 세운 이유는 옛일을 끌어와 지금을 경고하기 위함이다. 무릇 나라의 사대부들은 모두 문무가 본디 두 가지 이치가 아님을 알아 나라의 안위에는 서로 경중이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本朝 封域猶古 人民不加少 而兵力戰功 遠不及於勝國 一遭壬辰之亂 八路瓦解 苟不藉皇朝之力 則將不能爲國矣 至於丙子之縪 則鐵騎長驅 如升虛邑 奔走喘汗 乞命於數旬之間 此其故何哉 職由於文治勝而武力不競 浸浸然委靡脆弱 莫之振矣 及至喪亂旣平 恬然若無事 寧不哀痛 余爲是懼 乃聚東方名將 上自羅麗 下及本國 以立列傳 將以援古而警今焉 使夫國中士大夫 咸知文武本無二致 而安危注意互相輕重也. 홍양호, 「序」, 앞의 책, 1~2쪽.

6) 이 시기의 출판운동에 대해서는 이중연, 『'책'의 운명-조선~일제강점기 금서의 사회·사상사』, 혜안, 2001, 367~381쪽을 참고할 것.

7) 물론 교과서 집필자 또는 편역가(編譯家)에 가까운 현채는 1909년에 『幼年必讀』, 『中等敎科東國史略』이 금지 처분된 직후 일제 침략정책에 순응하는 『新纂初等小學』을 간행하기도 했다. 이중연, 앞의 책, 375쪽. 이 책 이외에 출판법 공포 이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 책은 아동용 교과서로, 을지문덕, 양만춘, 계백, 김유신, 장보고, 서희, 유금필, 이순신, 김덕령, 임경업 등의 무장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당시 출판문화의 지형 속에서 임진왜란의 영웅이자 승병장으로서 사명당 전기가『서북학회월보』에 실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근대계몽기 나라안팎의 영웅을 다룬 전기나 역사서적의 출판은 민족주의 의식의 구체적인 발현으로 읽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인물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사명당은 서산대사의 제자로서 정유년 대일강화 회담의 주역으로 그려지고 있을 뿐, 평양성 전투를 비롯한 임진왜란 당시의 공적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해동명장전』의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여 간단하게 한문구절 끝에 토를 달아 대일강화사로서 그의 행적만을 가장 두드러진 공적으로 올려세우고 있는 셈이다.『사명당전』이라는 이름을 빌어 그의 출생 내력과 가계, 행적을 포함한 일대기를 서사적으로 구현한 것은 딱지본 옛소설이었다.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8]과 다른 자리에서 1920년대 후반기에 발간된 딱지본 옛소설『사명당전』[9]은 출판사의 상업주의와 결부되면서 여

1910년 5월까지 압수된 서적은『越南亡國史』,『幼年必讀釋義』,『禽獸會議錄』,『二十世紀朝鮮論』,『勉庵文集』등이다. 압수된 부수는『유년필독』이 2,154부로 가장 많고,『중등교과동국사략』이 1,266부,『면암문집』이 922부로 뒤를 이었다. 이중연, 위의 책, 389쪽. 특히 의병항쟁의 거유(巨儒) 최익현의『면암문집』의 경우 출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당국이 금서 처분을 내린 사실을 통해, 1909년 출판법 시행 이후 민족주의적 출판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거나 심한 탄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유년필독』을 비롯한 동양서원 발행의 발매금지도서 목록은 다음 글에서 잘 정리해 놓았다. 하동호,「庚戌合倂과 함께 發禁된 圖書一覽」,『近代書誌攷拾潨』, 탑출판사, 1986, 7~10쪽.

8) 역사·전기소설의 양식적 특성과 개념, 범주에 대해서는 이승윤이 자세하게 살폈다. 이승윤,『근대 역사담론의 생산과 역사소설』, 소명출판, 2009, 34~54쪽. 그는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을 이전 단계의 양식인 단형의 인물 기사류를 제외한, '1895년~1910년 사이에 국한문이나 한글로 발표된 창작소설과 번안소설로 단행본 정도의 길이를 가진 작품'을 가리키며, 내용적 특질로 '국내외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전기를 소재로 하고, 단순 번역이 아니라 서사적 요소와 작가의 해석이 첨가된 작품'으로 규정했다. 위의 책, 40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러 판본이 생산·소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10]

그러나 이제까지 딱지본 옛소설『사명당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최근 들어 몇몇 연구[11]가 눈에 띄지만, 대체로 단편적인 논의에 그치거나 연구 범위나 대상이 지나치게 좁고 다양한 판본에 눈길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만큼 근대계몽기 이후『사명당전』의 생산과 향유 기반, 다양한 판본의 유통 맥락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근대 사명당 담론의 현황과 양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접근이 소홀했던 셈이다.

이 글은 1920년대 후반기에 발간된 딱지본 옛소설『사명당전』4종(덕흥서림본,[12] 영창서관본,[13] 회동서관본,[14] 신구서림본[15])을 대상으로 판

9) 근대적 활판 인쇄술의 도입 이후 신식 연활자로 인쇄한 딱지본 소설은 이제껏 '육전소설', '구활자본 고소설', '고대소설 구활판본', '구활자본 소설', '구활자본 고전소설', '딱지본 대중소설'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 왔다. 글쓴이는 필사본·방각본 소설이나 근대소설과도 일정하게 구별되는 이 책의 "독갑이 작란감 갓튼 울긋붉긋한"(춘파(春坡),「出版界로 觀한 京城」,『개벽』제48호, 1928.6, 92쪽) 장정과 전대문학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딱지본 옛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사명당의 일대기를 다룬 다양한 판본의 딱지본 소설책을『사명당전』으로 통칭하고, 동명의 개별 소설을 지칭할 때는 원전을 따라 한자로 표기하고자 한다. 가령『四溟堂傳』은 신구서림본을 지칭한다.

10) 그동안 딱지본 옛소설의 발간 현황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이능우,「'古代小說' 舊活版本 조사 목록」,『논문 집』제8집, 숙명여대, 1968, 59~93쪽.; 우쾌제,「舊活字本 古小說의 출판 및 연구 현황 검토」,『고전소설연구의 방향』, 한국고전문학연구회 편저, 새문사, 1985, 113~143쪽.; 하동호,「俗稱<얘기책> 書誌考略」,『近代書誌 攷拾潗』, 탑출판사, 1986, 47~59쪽.; 이주영,「구활자본 고전소설 목록」,『舊活字本 古典小說 硏究』, 월인, 1998, 204~234쪽.; 방효순, <출판사별 출판물 목록>,「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박사논문, 2001, 198~293쪽.

11) 김지연,「구활자본 역사영웅소설 연구」, 숙명여대 박사논문, 2002.; 김기선,「<사명당전>의 형성과정과 작자의식 연구」, 경성대 석사논문, 2009.; 이순욱·이상원,「근대 사명당 담론과 밀양 지역문학」,『한국문학논총』제55집, 한국문학회, 2010.8, 265~295쪽.

12) 장도빈,『西山大師와 四溟堂』, 덕흥서림, 1926.11.15. 초판. 1927년 11월 재판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본 성격과 특성을 규명하고, 유통 맥락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딱지본 옛소설이 폭넓게 생산된 문화적 기반을 고찰하고, 근대 이후 발간된『사명당전』의 판본 현황과 유통 맥락을 실증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제까지 학계에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던 딱지본 옛소설『사명당전』을 발굴·보고함으로써 근대문학의 중요한 자산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으며, 근대문학사에서 사명당 담론의 종합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Ⅱ. 딱지본 옛소설 발간의 문화적 기반과 역사·전기소설

1909년 출판법의 시행과 1910년 경술국치로 근대계몽기 민족적 출판문화운동의 지형은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일제의 검열과 금서 처분을 통

1928년 11월 3판을 발행했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1928년 발행된 3판을 기본 텍스트로 삼는다. 이 판본은 1948년 12월 동일한 표지와 내용으로 재발행되기도 했다. 저작자 장도빈·발행자 김동진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저작 겸 발행자가 김동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13) 백남신,『님진병난 四溟堂實記』, 영창서관, 1926. 판권지가 없어 발행일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작품의 말미에 '1926년 11월 17일 京城 唐珠洞 一隅에서 獨步□ 作'이라는 창작일자와 저자명이 명시되어 있다. 저자명의 마지막 글자를 파악하기 어려우나,『義氣男兒 申砬申大將實記』(태화서관, 1927.12)의 마지막에 '1927년 1월 11일 오전 새로 반 시에 씀 獨步'라는 부기를 통해 저자가 '독보'임을 알 수 있다. 독보는 딱지본 옛소설 전문작가로 활동했던 백남신의 필명으로 보인다.『님진병난 四溟堂實記』시작 부분인 1쪽에 딱지본 옛소설에서는 드물게 '白南信 作'이라 밝혀 놓았기 때문이다. 저자가 밝힌 창작일자를 감안하여 발행년도는 1927년으로, 발행소는 방효순이 박사논문 부록으로 제시한 '출판사별 출판물 목록-3. 영창서관 발행서'를 따라 영창서관으로 보았다. 방효순, 앞의 논문, 253쪽.

14) 고유상,『道僧 四溟堂』, 회동서관, 1928.12.25. 초판. 겉표지에 발행소가 신명서림으로 되어 있으나 판권지를 따랐다.

15) 노익형,『四溟堂傳』, 신구서림, 1928.12.15. 초판. 1931년 10월 25일 발행된 재판을 텍스트로 삼는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해 근대계몽기 가파르게 생산되었던 역사·전기소설이 출판시장에서 사라지는 자리에 딱지본 옛소설과 신소설이 통속화의 길을 걸으면서 문학사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을사늑약부터 경술국치까지 신문매체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도서가 171종임을 고려할 때, 1910년에서 1914년 사이에 금서 처분된 책이 100종에 이른다는 사실[16]은 경술국치 이후 일제의 출판통제가 그만큼 가혹했음을 증명한다. 소설의 경우 신채호의 『을지문덕』이나 『伊太利建國三傑傳』, 『崔都統』, 장지연의 『愛國婦人傳』, 안국선의 『禽獸會議錄』, 이해조의 『自由鍾』, 『鐵世界』가 금서로 지정되었다. 일제의 대대적인 금서 조치는 민족 출판자본의 몰락을 초래했으며, 자연스럽게 출판 경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6종이나 되는 도서가 금지 처분된 박문서관은 딱지본 옛소설을 발간함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 대표적인 출판사다. 2종이 금서 처분을 받은 영창서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출판업으로 누만금(累萬金)을 모았다는 풍설이 항간에 젖어 있는 박문서관은 어떠한 경로를 밟어 어떠한 서적의 출판으로 그렇게 치부를 하였나 일반이 궁금해 하는 수수꺾기를 푸러보려 기자는 사(社)를 나서 鍾路로 내다렀다. …(중략)…
>
> "그러면 서점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출판한 서적은 무엇이었읍니까."
>
> "**지금은 머 이야기할 자유들이 없는 서적이었읍니다.**"
>
>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론?"
>
> "네 그 후 말슴이요? 그 후엔 춘향전, 심청전, 옥루몽, 유충렬전 그저 이런 것들이었읍니다."
>
>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구소설들이 아직도 있다는 듯이 손을 드러 저쪽 서가를 가르친다.
>
> "그래 그런 것들이 잘 팔녔읍니다?"
>
> "잘 팔니구 말구요. 지금도 잘 팔니지요. **예나 이제나 같습니다. 춘향**

16) 이중연, 앞의 책, 426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전, 심청전, 유충렬전 이 셋은 농촌의 교과서이지요."[17]

1907년 4월 문을 연 박문서관 사장 노익형과의 대담에서 보듯이, 초창기에는 "지금은 이야기할 자유들이 없는 서적", 즉 사상서적을 주로 출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술국치 이후 "농촌의 교과서"로 기능한 딱지본 옛소설 발간을 통해 시대 변화에 대처해 나갔다. 1913년『구운몽』,『심청전』을 발간한 이후 1930년까지 박문서관에서 발행한 딱지본 옛소설의 종수는 130여 종에 이른다.[18] 이처럼 딱지본 옛소설은 "누만금(累萬金)을 모았다는 풍설"이 떠돌았을 만큼 대중독자의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 조선 안의 출판물은 년년이 격증하야 최근에는 매월 륙칠백 건이 뎡규의 수속을 거치어 출판되는 현상인바 과반수는 잡지류(雜誌類)로 일할 가량은 긔사의 일부분을 삭제당하고 허가되는 것이며 그 외 일할 내외는 전연 출판 금지되는 것이다. **출판물 총수의 륙할 강(인용자-가량)이 조선문란으로 문예물이 뎨일 만코 더욱이 년말에 니르면 농한긔(農閑期)인 까닭으로 온돌 알에목에서 "각설이때" 찻는 조선 전래의 구소설 출판이 뎨일 만타는데 어느 것은 수만 부를 돌파하는 것도 잇다.** 출판물 중에는 사상뎍으로 풍자(諷刺)한 것도 잇서 이러한 것은 불허가되는 것도 잇는바 출판물로서 매월 사백 건 내외의 차압 처분이 잇고 사법 처분에 부치는 것도 상당히 다수한 현상이며 일본과 외국에서 오는 출판물로 이입 금지를 당하는 것도 삼사백 건에 오른다더라.[19]

이주영은 발행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딱지본 옛소설의 발전 과정을

17)「出版業을 大成한 諸家의 抱負-出版文化의 殿堂, 博文書館의 業績」,『조광』, 1938년 12월호, 312~313쪽.

18) 물론 이 수치는 현재 실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지만 서적 광고 목록에 이름이 오른 종수를 모두 포함한 결과다. 구체적인 작품 목록은 방효순, 앞의 논문, 203~225쪽의 '출판사별 출판물 목록-1. 박문서관 발행서'를 참고할 것.

19)「朝鮮出版界 現況-每月 四百餘件 差押」,『동아일보』, 1928.12.21, 2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다섯으로 나누어 모색기(1912~1914), 전성기(1915~1918), 침체기(1919~1920), 부흥기(1921~1927), 쇠퇴기(1927~)로 각 시기의 특징을 살핀 바 있다.[20] 특히 그는 일제의 검열 강화와 신작 구소설의 출판과 출판허가 출원 건수의 급감, 출판사의 재편 등을 근거로 1927년 이후를 딱지본 옛소설의 쇠퇴기로 보았다. 그러나 방효순이 박사논문의 부록으로 제시한 '출판사별 출판물 목록'에 나와 있는 박문서관, 회동서관, 영창서관, 덕흥서림, 신구서림 간행도서 목록과, 간행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라는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쇠퇴 시기는 1927년 이후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실제로 딱지본 옛소설을 즐겨 읽는 전통적 독자층이 1920년대 후반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1928년까지만 해도 출판물 종수에서 "조선 전래의 구소설 출판"이 제일 많았다. 물론 1927년 이후 신문 매체의 딱지본 옛소설 광고가 사라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에 견주어 신작소설의 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독자층의 분화와 맞물려 근대적 유통체계에서 이들 소설이 서서히 위세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특히, 독자층의 분화[21]는 딱지본 옛소설의 쇠퇴를 가속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춘향전』이나 『심청전』을 읽던 시대와 읽던 사람과 『노라』를 읽고 『부활』을 읽는 시대와 사람 사이에서 엄청나게 다른 빛을 보고 다른 소리를 듣"[22)]기 때문이다.

그만큼 딱지본 옛소설의 성장과 후퇴에는 일제의 출판정책의 변화 못지않게 출판업자들의 성향과 출판 방향의 변화, 독자층의 양적 확산, 독

20)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163~178쪽.

21) 천정환은 이 시기 독자층을, 노동자와 농민·양반, 부녀자와 같은 사회적 신원을 가진 존재들을 '전통적 독자층'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도시 봉급생활자·학생·신여성을 '근대적 대중독자'로, 전문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했거나 그에 준하는 학력과 문학에 관심을 가진, 근대적 대중독자에 속하는 직업인과 계층 구성원들 중에서 특별히 양육된 존재를 '엘리트적 독자층'으로 분류하였다.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279쪽.

22) 「독서경향 제1차 여학생계」, 『동아일보』, 1931.1.26, 4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자의 취향과 교양의 분화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딱지본 옛소설은 주로 세책가와 장시, 보부상 등의 유통 기반을 갖고 있었던 필사본이나 방각본 소설과는 달리 근대적 대량 생산방식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유통과 소비에는 신문 잡지매체의 광고나 미디어가 개입하였다. 필사본에서 방각본을 거쳐 구활자본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연속적이다. 그것은 신구세대 독자층의 단절이 아닌 연속, 다양한 판본을 통한 재생산 구조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1930년대까지 수만 권 이상이나 소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읽기의 대중화·근대화, 책과 독서에 대한 탈신비화[23]를 추동한 각별한 의의가 있다.

1931년 당시 여학생, 남학생, 인쇄직공으로 나누어 "최근 1주일 동안 읽고 본 도서"를 대상으로 당대의 독서경향을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학생[24]은 중등과정의 상급생 3개 학교 44명을, 남학생[25]은 고등과정의 상급생 5개 학교 111명을, 인쇄직공[26]은 3곳의 95명을 대상으로 삼았다.[27]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학생 (44명)[28]	소설 종류	원저자 조선인	3명	28명(72%)
		원저자 일본인	12명	
		원저자 외국인	13명	
	사상 방면	원저자 일본인	4명	7명(18%)
		원저자 외국인	3명	
	잡지 기타		4명	4명(10%)
남학생 (111명)	소설 종류	원저자 조선인	2명	32명(31%)
		원저자 일본인	11명	
		원저자 외국인	19명	

23) 딱지본 옛소설 독자의 문화적 위상에 대해서는 천정환, 위의 책, 64~76쪽을 참고할 것.
24) 「독서경향 제1차 여학생계」, 앞의 신문, 4면.
25) 「독서경향 제2차 남학생계」,『동아일보』, 1931.2.2, 4면.
26) 「독서경향 제3차 인쇄직공」,『동아일보』, 1931.3.2, 4면.
27) 질문은 다음 세 가지였다. ①저자와 서명, ②읽게 된 동기, ③읽은 후의 소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사상 방면	원저자 조선인	무	36명(25%)
		원저자 일본인	23명	
		원저자 외국인	13명	
	신문잡지	조선문	16명	27명(23%)
		일본문	11명	
		중국잡지	1명	
	기타	원저자 조선인	3명	16명(14%)
		원저자 일본인	8명	
		원저자 외국인	5명	
인쇄직공 (95명)	사상 방면	원작자 조선인	9명	24명(25%)
		원작자 일본인	8명	
		원작자 외국인	7명	
	소설 종류	**원작자 조선인**	**23명**	36명(38%)
		원작자 일본인	1명	
		원작자 외국인	12명	
	역사전기	**원작자 조선인**	**25명**	**25명(26%)**
	신문잡지	조선문	6명	5명(6%)
	기타	원작자 조선인	3명	4명(4%)
		원작자 일본인	무	
		원작자 외국인	1명	

여학생의 경우에는 소설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다만 조선인의 작품은 춘원의 작품이 전부이며, 그 가운데 『무정』이 다수를 차지했다. '근대적 대중독자'인 고등과 여학생들의 딱지본 옛소설에 대한 기피 현상과 근대소설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작가는 국지관(菊池寬), 작품은 학견우보(學見祐輔)의 『어머니』를, 서양의 경우에는 콜론타이의 『붉은 사랑』과 입센의 『인형의 집』이 다수를 차지했다. 남학생의 독서 동기가 선생의 지시나 저자의 명성, 친구의 권유 등 다양한데 비해, 여학생의 경우는 친구의 권유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독후감을 보면 당시 여학생의 취향과 지향점을 알 수 있는바, 여성해방운동의 방향과 도덕관념의 변화에 관한 인식을 담고 있다. 자유연애와 낭만적 사랑이 강조되던

28) 응답자 가운데 "무독서 5명"을 제외한 결과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여성해방론과 정조 관념에 대한 문제가 여학생들의 핵심적인 관심사였음을 환기한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사상서적이 가장 많고, 취미로 읽는 소설과 신문 잡지는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상서적은『공산당 선언』이나『근세 노동계급의 대두』,『유물사관』등 사회주의 관련 서적이 많았으며, 소설은 춘원의『재생』과『삼봉이네 집』을, 일본문학은 대부분을 전집류를 선호했다.

딱지본 옛소설의 향유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계층은 인쇄직공들이다. 여학생과 마찬가지로 소설이 많으나, 근대소설과 딱지본 옛소설이 섞여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과반수 이상은 춘원의 작품이고,『구운몽』,『옥루몽』등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전통적 독자층이 선호했던 이러한 고소설이 대체로 유교주의에 근거하여 충효를 강조하거나 가족윤리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쇄 노동자들이 보여주는 독서경향은 상당히 복합적인 셈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학생들과 달리, 을지문덕, 세종대왕, 이순신, 성삼문, 김옥균 등 역사적 인물의 일대기를 담은 역사·전기소설의 비중이 꽤 높다는 점이다. 이 시기 생산된 딱지본 옛소설 250여 종 가운데 역사 관련 서사는 100여 종에 이른다.[29] 1910년 후반부터 1920년대 중후반으로 갈수록 조선의 역사·전기소설이 양산된 것은 조선적인 것과 그 정체성을 강조하던 문화민족주의[30]와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잃은시대 민족적인 영웅 출현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데 적절한 양식이었기 때문이다.[31] 그러나 이 시기 딱지본 역사·전기소설

29) 이승윤, 앞의 책, 77쪽.
30) 천정환, 앞의 책, 301쪽.
31) 출판사별 발행 도서를 정리한 방효순의 목록을 통해 이 시기 발간된 대표적인 딱지본 역사·전기소설을 들면 다음과 같다.『단종대왕실기』,『신돈실기』,『사명당전』,『을지문덕실기』,『이순신실기』,『인조대왕실기』,『태조대왕실기』(이상 박문서관),『도승 사명당』,『성삼문』,『이순신전』(이상 회동서관),『강감찬실기』,『김유신실기』,『단종대왕실기』,『리순신실기』,『림경업전』,『님진병란 사명당실기』,『조선태조실기』,『홍경래실기』(이상 영창서관),『남이장군실기』,『단종대왕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은 근대계몽기와는 달리 저항적 민족주의적 색채를 탈각[32]시키고, 상업주의와 맞물려 흥미 위주의 통속성에 과도하게 기댐으로써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길로 나아갔다. 또한 특정 작품이 출판사를 달리하여 중복 출판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본 간의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만년조선역사』[33], 『옥루몽』[34]과 관

실기』, 『성종대왕실기』, 『서산대사와 사명당』, 『효종대왕실기』, 『홍성대원군실기』, 『임진명기논개실기』, 『임진병란도원수권율』(이상 덕흥서림). 『김응서실기』, 『무학대사전』, 『문무대왕』, 『사명당전』, 『서산대사』, 『울지경덕실기』, 『이순신실기』, 『이태왕실기』, 『홍경래실기』(이상 신구서림) 등이다. 방효순, 앞의 논문, 203~293쪽. 임진왜란과 관련된 역사·전기소설은 『임진명장이여송실기』, 『임진병란청정실기』, 『임진병란소섭실기』, 『사명당전』, 『서산대사와 사명당』, 『리순신실기』, 『의기남아 신립신대장실기』, 『임진명기논개실기』, 『임진병란도원수권율』 등이 있다.

32) 다음 글에서 1920년 중반의 출판계 사정을 잘 전하고 있다. "정치적·경제적으로 또는 사상계·언론계로 두루 압박만 당하는 조선민족인지라 사상 하나를 자유로 발포(發布)할 수 없고, 필설(筆舌) 한 번 마음대로 내어두르지 못하고 설혹 사상의 발포, 언론의 주장이 있다 해도 출판하기에 능력이 불급(不及)한지라. 이러케 저러케 못되게만 된 조선의 출판계이다." 춘파(春坡), 앞의 글, 92쪽.

33) 당시 조선에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첫 사례는 보성고보 역사교사 황의돈이 덕흥서림 주인 김동진과 박해묵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다. 1923년 10월경 김동진·박해묵 두 사람의 이름으로 발행한 『반만년조선역사(半萬年朝鮮歷史)』가 황의돈이 1923년 9월경 이문당서포(以文堂書舖)에 위탁하여 출판케 한 『신편조선역사(新編朝鮮歷史)』의 내용을 "처음과 끗의 약 열폐지 가량만 변작(變作)"하였을 뿐, 그 외에는 전부 『신편조선역사』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고소한 것이다. 「『半萬年歷史』로 著作權侵害 訴訟」, 『동아일보』, 1924.8.17., 2면. 이 사건이 법정에서 다루어진 때는 같은 해 12월이며, 1심에서는 피고인 김동진과 박해묵이 벌금 백원을 언도받았으나 불복하여 복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半萬年歷史』 법뎡에서 말셩」, 『동아일보』, 1924.12.6., 2면.; 「著作權事件 일심불복 공소」, 『동아일보』, 1925.12.2., 2면.

34) 김익수가 『원본언토옥루몽(原本諺吐玉淚夢)』을 출간하기 위해 허가를 마치고 제본 중일 때, 이 책이 1918년 7월 덕흥서림에서 초판 발행한 『현토옥루몽(懸吐玉淚夢)』 상중하 3권 내용을 베낀 복사본에 불과하므로 덕흥서림 주인 김동진이 책의 판매를 금지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古代小說 玉淚夢-『江南紅』의 眞假로」, 『조선일보』, 1924.12.4., 2면. 1925년 5월의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고대소설계의 권위라 할 만한 이해조(李海朝), 김홍권(金鴻權)"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련된 저작권 소송을 통해 볼 때 모방과 발췌 편집 등의 개작과 변용이 거듭 이루어진 영역이 딱지본 옛소설의 자리다. 근대계몽기 단형의 인물 기사와는 사뭇 다른 문화적 기반과 유통 맥락에서 생산된『사명당전』또한 1920년대 후반 4종이 간행되면서 이러한 성격을 여지없이 노정하고 있다. 이는 당대 독자들의 문화적 취향을 충족시키려는 출판 시장의 과도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역사·전기소설이 갖는 인물의 제한성과 소재의 고갈, 서사전략의 부재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본다.

Ⅲ. 1920년대『사명당전』의 판본 성격과 유통 맥락

『사명당전』은 여러 판본을 가지고 있는 딱지본 옛소설 가운데 하나다. 딱지본 옛소설이 대체로 전통적 독자층, 특히 부녀자나 하층민[35]을 중심으로 두터운 수요자층을 형성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출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1910년 이후 역사 소재 딱지본 옛소설에서 발견되는 "—전"의 형식은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들과 같은 작가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통속화되고 대중출판물로 자리를 잡으면서 좀 더 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였다.[36]

1920년대 중후반에 간행된『사명당전』은 근대계몽기 들어 재발행된

두 사람에게 촉탁하여 내용을 감정한 결과, 1심을 번복하여 1926년 12월 26일 1심 판결을 번복하여 금광서림(金光書林) 김익수의 승소 판결을 언도하였다. 「'玉淚夢' 裁判」,『동아일보』, 1926.12.30., 2면.

35) 조선에서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춘향전』이나『심청전』이며, 애독자는 "중류 이상 가뎡부인"이 많고, "행랑방의 헐고 떨어진 반지ᄭᅩ리 우"에도 이 소설이 놓여있다는 진술로 보아 주로 가정부인, 농민이나 노동자 등의 하층민이 딱지본 대중소설의 주된 향유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H. K생, 「가뎡과 구소설, 구소설과 작가」,『조선일보』, 1929.4.2, 3면.

36) 이승윤, 앞의 책, 80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해동명장전』의 인물전기에 살을 덧붙이면서 사실성에서 허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또한 '서산대사전'의 부록으로 다루어지던 서술체재와 형식을 벗어나 독립적인 역사·전기소설로 나아가는 양상을 띤다. 무엇보다도 『임진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명당의 신이한 능력을 비롯한 설화적 요소, 병부상서 석성의 아내와 정곤수의 일화를 차용하거나 변용한 야담적 요소, 가정비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복수 모티프들을 적극 수용하면서 1926년부터 1930년까지 네 차례 간행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덕흥서림본, 영창서관본, 회동서관본, 신구서림본 『사명당전』이 그것이다. 비록 통속성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이들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파쟁으로 인한 정치문란과 문치주의에 대한 비판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37] 그런데도 당대 출판시장의 논리와 일정한 관련을 맺으면서 내용과 체재에서 판본의 차별성이 드러난다.

첫째, 덕흥서림본 『西山大師와 四溟堂』은 전체 5장의 회장체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①서산대사의 입산, ②서산대사의 출전, ③서산대사와 사명당, ④서산대사와 김응서, ⑤서산대사의 말년이 큰 줄기다. 회장체 구성은 독자들에게 관련 정보와 서술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지닌다. ①에서 대사의 가계와 행적을 4쪽에 걸쳐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②에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승병을 일으킨 서산대사가 김응서, 이여송과 함께 평양성을 회복하고 묘향산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다. ③은 선조의 명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와 담판하여 왜군을 철군시키고, 조선인 포로 삼천 명을 귀환시킨 사명당의

37) 다음 지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럴슈록 동서붕당은 날로 번성하고 싸홈이 쓴칠 날이 업섯다. 그런 중에도 유학(儒學)에만 힘을 쓰고 무력(武力)이라는 것은 조금앗치도 도라보지 안엇다." 독보(獨步), 『님진병난 四溟堂實記』, 영창서관, 1926, 2쪽. "조선서는 개국한 지 이백여 년에 운치만 슝샹하고 무비는 소홀하여 군사가 무엇인지 싸홈이 무엇인지 도모지 아지 못하는 나라로서 여간 둔한 창과 무된 칼이 잇슨들 조총갓치 예리한 긔계를 저당할 수가 잇겟는가." 고유상, 『道僧 四溟堂』, 회동서관, 1928.12, 27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외교적 성공을 다루고 있다. ④에서는 선조에서 광해군에 이르는 시기 김응서의 활약상과 "만주 님금 놀아치"의 항복 권유에도 끝까지 저항하다 죽기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서술하고 있다. ⑤에서는 서산대사 사후 불교계의 동향과 제자들의 행적, 유묵에 대한 소개로 소설을 마무리하였다.[38] 서산대사의 삶과 활동에 초점을 맞춘 덕흥서림본은 통속적 색채를 강조하기 보다는 근대 역사·전기문학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춘 계몽성이 강한 역사소설이라 할 만하다.

저작자 산운 장도빈은 홍양호와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의 원인이 문치(文治)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라 본다.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과 국토의 유린을 조선이 "군비를 등한히 하고 또 인민이 글을 지으며 나타히 놀기만 조와하야 전쟁할 힘이 매우 약하"(5쪽)다는 데서 찾는다. 이는 근대계몽기 역사위인전기를 서술했던 지식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인식이기도 하다. 장도빈은 근대계몽기 신채호나 박은식의 역사·전기소설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그들의 제자 또는 후배 언론인으로 성장한 사람이다. 특히 신채호의 각별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채호가 단행본 전기로 기술했거나 논술에서 주요하게 언급했던 인물들을 망라하여 번역·창작 전기로 출판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39] 그런 까닭에 이 소설에서는 다른 판본과는 달리 허구적 요소를 약화시키고,[40] 실존인물을 등장시켜 서술자가 서산대사의 활약과 공적을 요약적으로

38) 이순욱·이상원, 앞의 글, 275~276쪽.

39) 신채호와 장도빈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김성연,「1920년대 번역계의 세대 교체-한성도서주식회사와 장도빈의 출판 활동을 중심으로」,『반교어문논집』31집, 반교어문학회, 2011, 37~40쪽.

40) 정곤수가 명나라의 파병을 이끌어내는 데 "청원서를 품에 품고 날마다 대궐문 밧게서 울어 밤낫으로 닐헤 동안을 운"(14쪽) 그의 간절한 노력이 작용했지만, 정곤수와 석성부인과의 인연(11~14쪽)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홍순언의 일화를 채용한 측면도 있다. 평양성을 탈환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김응서와 의기 계월향의 활약(8~10쪽)에서 보듯이, 부분적으로 설화나 야담에서 내용을 차용하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려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서산대사 일대기의 부수적 서사로 개입되어 있는 3장 '서산대사와 사명당'에서는 평양성을 회복하고 도성으로 돌아온 서산대사가 제자인 유정에게 총섭 자리를 맡기고 묘향산으로 돌아간 뒤의 사명당 행적을 구성하고 있다.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회담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외교적 협상에서 사명당이 줄곧 우월적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①이번 일본이 무단히 조선을 침범하야 두 나라의 사람이 만히 죽고 나라의 형세 모다 곤난하게 되얏스니 그는 장군의 죄로소이다. … 그는 장군의 거짓말이니 … 그는 장군이 또한 잘못 생각이라 …장군은 실로 못난 사람이라. …장군은 아직 꿈을 못 깨는지라. … 장군은 참으로 시세를 모르나이다.… 얼골빗치 변하며 걸상에서 내려서 짜에 꿀어안즈며 … 유정이 도라올세 수길이 유정을 보고 아못조록 조선에 도라가 량국의 평화를 성공적이라고 부탁하며 …
>
> ②가강이 유정을 환영하야 이왕 풍신수길이 조선을 침노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이제붓터 다시 국교를 회복하기를 지원하거늘

①은 사명당과 토요토미 히데요시와의 협상에서 드러난 사명당의 발언과 수길의 태도를 발췌한 내용이며, ②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와의 협상 결과를 서술한 부분이다. 조선에 귀화한 일본장수 사야가(훗날 김충선으로 개명)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덕흥서림본은 강화 협상의 자세한 경과나 과정보다는 사명당의 탁월한 외교능력과 우월적인 태도를 통해 식민지 조선과 제국주의 일본의 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드높이고 민족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전인물의 신이한 능력이나 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대사와 사명당, 김응서라는 실존인물의 능력을 통해 조선적인 것과 그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했던 판본이 바로 덕흥서림본인 셈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둘째, 영창서관본『님진병난 四溟堂實記』는 서사내용이 가장 풍부한 판본 가운데 하나다. 전체적으로 사명당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소설에 가깝다. 그러나 출가 이전 가정사의 비극을 서사화한 부분을 보면 설화적 요소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다분히 문제적이다. 전체 134쪽 가운데 83쪽에 이르는 출가 전의 서사는 판본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후 발간되는 판본에서 출가 이전 사명당 행적의 밑그림으로 작용하게 된다. 출가 전 이야기의 큰 흐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가 이전	밀양 동촌 사람 사명당의 성은 임이요 이름이 유정으로 부친의 벼슬이 승지에 이르다.
	동서 붕당으로 정사를 폐지할 지경에 이르러 임승지가 낙향하다.
	지력이 뛰어나고 총명한 유정이 진주 향과에서 장원급제하다.
	유정이 정혼한 이참판의 맏딸과 결혼하다.
	이듬해 태평과에 응시했으나 장원급제하지 못하고 백패만을 얻어오다.
	이씨부인이 아들을 낳다.
	부모 돌아가시고 3년상을 모신 뒤 과거를 포기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이씨부인이 병들어 극진히 간호했으나 28세의 나이로 죽다.
	임진사가 김참판 맏딸과 재혼하여 3년 뒤 아들을 얻고, 아들이 장성하면서 큰아들을 구박하기 시작하다.
	김씨부인이 딸을 낳다.
	임진사의 큰아들이 한선명의 맏딸과 결혼하다. 첫날밤 큰아들이 머리가 잘린 채로 죽다.
	임진사가 칩거하고, 김씨부인이 집안일을 도맡아 제멋대로 하다.
	한씨부인이 누명을 벗기 위해 방울장사로 나서고, 진주까지 가서 계속 탐문하다.
	이첨지의 수양딸이 된 한씨부인이 이첨지의 자백을 받고 밀양으로 돌아오다.
	한씨부인이 임진사를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다.
	임진사와 한씨부인이 안방 다락에서 큰아들의 머리를 발견하고, 한씨부인은 자결하다.
	임진사가 하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친정에서 돌아온 김씨부인과 두 자식을 결박하고 집에 불을 지르다.
	임진사가 금강산 표훈사에 들어가 서산대사를 만나 도학에 힘쓰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사명당의 가정비극에 초점을 맞춘 출가 전의 서사는 둘째부인 김씨의 계략에 따른 큰아들의 죽음과 며느리 한씨부인의 복수담에 과도할 정도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여기에는 탐정소설의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씨부인의 자결에 이은 임진사의 김씨부인에 대한 복수담 또한 독자들을 긴장상태로 몰아넣으며 극적 재미를 배가시킨다. 이것이 임유정의 출가 동기가 되고, 결국 서산제자의 제자가 되어 도학에 힘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회동서관본과 신구서림본뿐만 아니라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간행된 영화출판사본,[41] 대조사본,[42] 세창서관본,[43] 향민사본[44]『사명당전』으로 고스란히 반복되거나 계승된다. 판본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변형과 개작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영창서관본은 중간 중간에 서사 전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억지로 조선과 명나라, 일본의 정세를 서술한 내용을 배치하여 출가 후의 서사와의 관련성을 무리하게 환기시키고자 했다.

반면, 출가 이후 사명당의 행적은 마지막 부분에서 간략하게 드러날 뿐이다. 전란의 경과와 각 지역의 전투 상황이 다만 지루하게 나열됨으로써 출가 전의 서사가 가졌던 재미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전기소설에 걸맞게 사명당을 중심인물로 삼아 두드러진 행적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하는데도, 서술자가 보고자적 위치에서 전투 장면을 과도하게 제시함으로써 체계가 허술한 한 편의 임진전란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셋째, 회동서관본『道僧 四溟堂』은 영창서관본의 부분적인 변주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큰아들 성운이 10세 때 임진사가 금강산으로 유람을 떠난 뒤 홍역을 앓는데, 김씨부인이 방치하다 다듬이 방망이로 머리를

41) 강근형,『壬辰倭亂 四溟堂傳』, 영화출판사, 1954.5.20. 초판.
42) 대조사편집부 엮음,『壬辰倭亂 四溟堂傳』, 대조사, 1958.9.30. 초판.
43) 신태삼,『西山大師와 四溟堂傳』, 세창서관, 1962.30. 초판.
44) 향민사 편집부,『壬辰倭亂 四溟堂傳』, 향민사, 197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내려쳐 죽인다는 내용이 다르다. 또한 영창서관본처럼 추리 탐정에 의한 해결방식이 아니라 죽은 아들이 임진사의 꿈에 나타나 죽음의 원인을 알려주어 김씨부인에게 복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반면, 출가 후 서사의 경우에는 덕흥서림본처럼 선조가 서산대사에게 팔도 승군을 총괄하는 총섭을 맡기고, 유정이 서산대사의 명으로 의병을 일으키는 과정, 서산대사의 요청으로 유정이 총섭을 대신 맡아 서울에 유진하게 되는 경과와 평수길의 화친 수락으로 유정이 통신사로 일본에 들어가 회담하고 포로 3000명을 쇄환하는 과정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영창서관본에 비해 출가 후의 행적에 대한 서사가 사명당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편이다. 다만, 다른 판본과는 달리 사명당이 일본에 들어가 풍신수길의 시험에 들어 도술로 극복하는 이야기는『임진록』에서 보이는 내용을 수용하거나 변형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대판성 북산 바위에 십여 일 동안 앉혀두고 음식을 주지 않는다든지, 맨발로 송곳방석 위를 걷게 하거나 가마 속에 들어가게 하는 시험은 사명당의 신이한 능력을 부각시키는 서사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회동서관본은 영창서관본과 마찬가지로 통속성을 강하게 노정하고 있는 판본이라 볼 수 있겠다. 이는 민족교양과 애국계몽을 위한 공공적 요구에서 촉발되어 실천의 논리를 강조했던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의 지향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다. 전통적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대중적인 취향을 반영하여 상업주의적 논리를 추구한 결과로 보인다. 덕흥서림본이 사명당의 일대기를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소설화하여 계몽성을 강조했다면, 영창서관본과 회동서관본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배경으로 삼아 비극적 서사를 집어넣어 통속적 재미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이다.

넷째, 신구서림본『四溟堂傳』은 전체 52쪽으로, 영창서관본을 발췌 편집하여 압축적으로 요약한 판본이라 말할 수 있다. 가령, 신혼 첫날밤에 임진사의 큰아들이 죽고 난 뒤, 한선명이 딸을 질책하는 부분을 보자.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① 한씨부인은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나서 벌벌 떨면서 대답을 못하다가

"안니 말해라. 이년! 어서 말해!" 하고 자긔 부친이 뭇는 바람에 억지로 입을 열어서

"모르겟서요!"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모기소리만 하고 떨니엿다. 한선명이는 눈을 무섭게 흡쓰고 쥬먹을 붉은 쥐고 금방 때려 쥭일 듯이 노리여 보며

"모르다니 엇재 몰나 한방에서 자고도 엇젼 일인지 몰나? 이년 바로 말해라. 바로 말하지 안으면 내 손에 쥭는다." 하고 쳔동갓치 호령을 하엿다. 한씨부인은 눈물을 흘니며

"엇젼 일인지 도무지 알 슈가 업세요! 어적게 밤 삼경이나 되어서 취침하고는 앗침에 일러나 보닛가 져 모양이 되엿서요!" 하고 무섭고 두려운 듯이 눈을 감고 통곡한다. 그 우름소리는 반공에 놉히놉히 올나 운소(雲霄)의 사못쳐서 하나님에게 허소하는듯 듯는 자로 하여금 구곡간장이 슬슬 녹아나올 듯 산쳔초목이 슬허하고 날나가든 새도 한씨부인의 우름소리를 동경하야 우는 듯하다.[45]

② 명션이 재처 문왈 이년아 말해라 어서 말을 해— 신부는 억지로 입을 여러 답왈 져는 모르갯서오 하는 소리가 모기소리만 하고 떨기만 하거늘 명션이는 눈을 무섭게 흡쓰고 두 주먹을 붉은 쥐고 금방 때려 쥭일 듯이 노리여 보며 소리를 버럭질너 문왈 이년아 모르다니— 엇재 몰나 한방에서 자고도 엇진 일을 몰나— 이년 바로 말해라 죽기 젼에 바로 말 아니하면 내 손에 죽는다 하고 텬동갓치 호령하되 신부 눈물만 흘이며 왈 엇젼 일인지 도모지 알 수가 업슴니다. 어적게 밤 삼경이나 되여서 취침하고는 앗참에 일어나 보잇가 저 모양이 되엿서요 하고 무셥고 두려운 듯이 눈을 감고 통곡는데 그 우름소리는 반공에 놉히놉히 올나 운소(雲霄)에 사못처서 하나님씌 허소하는듯 듯는 자로 하여곰 구곡간장이 슬슬 녹아나올 듯 산쳔초목이 슬허하고 나라가는 새도 신부의 우름소리를 동경하야 우는 듯하더라.[46]

45) 백남신, 『님진병난 四溟堂實記』, 영창서관, 1926, 38쪽.
46) 노익형, 『四溟堂傳』, 신구서림, 1928.12.15., 16~17쪽.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판권을 넘겼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두 판본 간 내용상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장황한 묘사나 대화를 생략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긴 부분을 줄이고 문장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창서관본의 체재와 서사구조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살핀『옥루몽』의 경우처럼, 저작권 소송을 야기할 수 있을 만큼 표절의 흔적이 두드러진다.

Ⅳ. 마무리

근대계몽기 역사·전기문학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딱지본 옛소설의 실상을 파악하고 개별 작품의 다양한 판본을 발굴하여 성격을 규명하는 일은 딱지본 옛소설 연구의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 글은 1920년대 중후반기에 생산된 딱지본 옛소설『사명당전』의 판본 차이와 성격, 유통 맥락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근대계몽기의 시대적 지향 속에서 사명당 전기는 홍양호의『해동명장전』과『서북학회월보』등의 몇몇 매체를 통해 단형의 인물기사 양식으로 소개되었다. 본격적인 역사·전기소설『사명당전』이 여럿 생산·유통된 것은 1920년대 중후반의 일이었다.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과 다른 자리에서 역사적 인물이 대중적으로 호출되고 소비되던 독서시장의 변화 속에서『사명당전』은 출판사의 기획출판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대계몽기와는 달리 이 시기의 역사·전기소설은 저항적 민족주의적 색채를 탈각시키고, 상업주의와 맞물려 흥미 위주의 통속성에 과도하게 기댐으로써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길로 나아갔다. 대체로 딱지본 옛소설이 전통적 독자층, 특히 부녀자나 하층민을 중심으로 두터운 수요자층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출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기『사명당전』이 4종이나 출간된 것도 이러한 상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황과 무관하지 않다.

이 시기 간행된 『사명당전』은 근대계몽기 재발행된 홍양호의 『해동명장전』의 인물전기에 살을 덧붙이면서 사실성에서 허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또한 '서산대사전'의 부록으로 다루어지던 서술 체재와 형식을 벗어나 독립적인 역사·전기소설로 나아가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임진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명당의 신이한 능력을 비롯한 설화적 요소, 병부상서 석성의 아내와 정곤수의 일화를 차용하거나 변용한 야담적 요소, 가정비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복수 모티프들을 적극 수용하고 있었다.

우선, 회장체 구성의 덕흥서림본 『西山大師와 四溟堂』은 통속성을 배제하고 근대 역사·전기문학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서산대사전의 부수적 서사로 개입되어 있는 이 소설에서는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된 사명당의 행적이 3장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명당의 외교력과 일본에 대한 우월적인 태도를 전면에 드러냄으로써 작가의식을 투영하고 있었다.

둘째, 사명당의 일대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소설로 볼 수 있는 영창서관본 『님진병난 四溟堂實記』는 이후 출판되는 『사명당전』의 원천 텍스트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특히 이 소설은 가정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는 이후 판본의 모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는 한씨부인의 복수담은 탐정소설의 방법을 원용함으로써 독자들의 통속적 재미를 이끌어내는 소설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었다. 반면, 출가 후의 서사는 인물과 지역 중심으로 임진왜란의 경과와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가 전의 서사와 유기적 관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출가 전의 서사에서 영창서관본의 부분적 개작으로 볼 수 있는 회동서관본 『道僧 四溟堂』은 영창서관본에 비해 출가 후의 서사를 사명당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다. 책의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출가 후의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서사는 사명당의 신이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설화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구서림본『四溟堂傳』은 영창서관본을 발췌 편집하여 압축적으로 요약한 판본으로, 이 시기 딱지본 옛소설의 경쟁적인 출판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었다.

이처럼 1920년대 딱지본 옛소설『사명당전』은 민족교양과 애국계몽을 위한 공공적 요구에서 비롯된 근대계몽기 역사·전기소설과는 달리, 전통적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대중적인 취향을 반영하여 상업주의적 논리를 가파르게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딱지본 옛소설『사명당전』은 판본에 따라 부분적인 변형이나 개작이 가해진 당대는 물론이고, 1950년대 이후 영화출판사본, 대조사본, 세창서관본, 향민사본으로 고스란히 반복되거나 변주됨으로써 1970년대 후반까지 전통적 독자들에게 널리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딱지본 옛소설 연구가 근대문학사와 출판문화사의 풍요로운 이해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료 발굴을 통해 전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아가 조선후기 역사·전기문학과 근대계몽기 인물전기, 근대 역사소설과의 관련성을 문학사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발굴 작품을 바탕으로 개별 작품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참고문헌

1. 일차자료

강근형, 『壬辰倭亂 四溟堂傳』, 영화출판사, 1954.

고유상, 『道僧 四溟堂』, 회동서관, 1928.12.

김동진, 『西山大師와 四溟堂』, 덕흥서림, 1948.12.

노익형, 『四溟堂傳』, 신구서림, 1928.12.

대조사편집부 엮음, 『壬辰倭亂 四溟堂傳』, 대조사, 1958.9.

독보(獨步), 『님진병난 四溟堂實記』, 영창서관, 1926.

신태삼, 『西山大師와 四溟堂傳』, 세창서관, 1962.

장도빈, 『西山大師와 四溟堂』, 덕흥서림, 1926.11.

향민사 편집부 엮음, 『壬辰倭亂 四溟堂傳』, 향민사, 1972/1978.

「休靜大師傳 附惟政 靈圭」, 『西北學會月報』 제1호, 1908.6.

홍양호, 『海東名將傳』 卷之五, 조선광문회, 1911.

2. 이차자료

권순긍, 『활자본 고소설의 편폭과 지향』, 보고사, 2000.

김기선, 「<사명당전>의 형성과정과 작자의식 연구」, 경성대 석사논문, 2009, 1~57쪽.

김달진 외 옮김, 『四溟大師集』, 동국역경원, 1970.

김찬기,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전』, 소명출판, 2004.

김현양, 「1910년대 구활자본 고전소설의 존재 양상과 그 특성」, 『한국 고전소설사의 거점』, 보고사, 2007.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박사논문, 2001.

신유한 편찬 · 이의강 옮김, 『분충서난록(奮忠紓難錄)』, 표충사, 2010.

신학상, 『사명당실기』, 기린원, 198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아단문고 기획실,『통속과 정념의 매혹, 옛날 이야기책을 만나다』, (재)아단문고, 2007.
엄태웅,「활자본 고전소설의 근대적 간행 양상: 新舊書林의 간행 양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07.2.
우쾌제,「구활자본 고소설의 출판 및 연구현황 검토」, 한국고전문학연구회 엮음,『고전소설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이순욱・이상원,「근대 사명당 담론과 밀양 지역문학」,『한국문학논총』 제55집, 한국문학회, 2010.8, 265~295쪽.
이승윤,『근대 역사담론의 생산과 역사소설』, 소명출판, 2009.
이정춘・이종국 편저,『독서와 출판문화론』, 범우사, 1988.
이주영,『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월인, 1998.
이중연,『'책'의 운명-조선~일제강점기 금서의 사회・사상사』, 혜안, 2001.
이진경,「근대 계몽기『대한매일신보』에서 근대적 역사 개념의 탄생」,『사회와 역사』 제74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109~140쪽.
이창경,「세창서관과 딱지본」,『문화예술』 1987년 9・10월(통권 113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47~58쪽.
이희승,「소설과 애기책」,『朝鮮文學硏究鈔』, 을유문화사, 1946, 98~102쪽.
임유경,「조선후기 역사・전기문학의 후대 계승-근대계몽기 인물기사와 관련하여」,『대동한문학』 제27집, 대동한문학회, 2007, 335~360쪽.
조기준,「開化期의 書籍商들」,『한국기업가사』, 박영사, 1974.
천정환,『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하동호,「俗稱<애기책> 書誌考略」,『近代書誌攷拾漯』, 탑출판사, 1986.
하동호,『近代書誌攷拾漯』, 탑출판사, 1986.
한태문・이응인・이순욱 엮음,『밀양설화집』 1~3, 세종문화사, 2009.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Different Versions and Distribution Channels of Ttakjibon Old Novel *"Story of Samyeongdang"*

Lee, Soon-Wook · Han, Tae-Moon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he background of the ttakjibon old novels *"Story of Samyeongdang"* published in the 1920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channels of its various versions. As a result of the extensive publication ban impos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the 1910s, ttakjibon old novels were mass-produced, most of which were biographies of the great men from the Joseon Dynasty. This is not only because ttakjibon old novels were related to cultural nationalism which focused on the things representing the Joseon era and the identity of the time but because they were the most suitable style that could meet the expectation and desire of readers who wished to see the emergence of a hero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is cultural background contributed greatly to the trend where four different versions of ttakjibon old novels of *"Story of Samyeongdang"* were produced and enjoyed in the mid to late 1920s.

First, Deokheung-Seorim's version published in 1926 consisting of five chapters was a historical novel with a strong tendency to enlightenment concentrating more on historical fact like modern history or biography literature than on popular trends. Second,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Yeongchang-Seogwan's version created in 1926 was the version with the most narratives. This version was close to a historical novel as it described the entire life of Samyeongdang, but it also sought popular fun by main streaming the domestic tragedy he experienced before he became a Buddhist monk. Narratives about his joining of the Buddhist priesthood varied by part but served as a base for future versions. Third, Hoedong-Seogwan's version published in 1928 showed differences in some parts but could be said as a variation of the Yeongchang-Seogwan's version. Narratives about his life after he became a Buddhist monk, however, presented a more organized development with a focus on Samyeongdang himself than the Yeongchang-Seogwan's version. Fourth, Singu-Seorim's version released in 1928 was a summary of Yeongchang-Seogwan's version by excerpting and editing it. It is fair to say that Yeongchang-Seogwan's version might have transferred its copyright because the two versions shared very similar formats and narrative structure.

Key Words : Samyeongdang, Ttakjibon old novel, version, Deokheung-Seorim's version, Yeongchang-Seogwan's version, Hoedong-Seogwan's version, Singu-Seorim's version

▌논문접수 : 2013년 11월 15일
▌심사완료 : 2013년 12월 15일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